이렇게 서궤에 세전되어 남게 된 것 같았다. 다른 집안에 요즘 그런 문적이 흔적도 없어진 게 옛날인데 이를 3대째 소장하고 있는 이 집안 종부宗婦들의 정성도 예사롭지 않았다.

해가 바뀌어 2010년 초가 된 1월 10일, 답사취재를 위해 날을 잡아 반곡 권재종·덕촌 권재창과 함께 대구행을 하였다. 대구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목천의 큰누님인 85세의 권수희權壽姬와 누이동생으로 80세인 권하정權荷貞을 만나 기억을 더듬게 하려는 것이었다. 대구에 가서는 이 두 노자매로부터 일제시대와 6·25전란을 전후한 시기 등에 걸치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첩에 치부해 가지고 돌아왔다. 2월에는 위 두 사람과 함께 서울의 수색에 살며 76세로 노환중인 목천의 셋째아우 권재선權在宣과 그 부인 송정자宋政子 내외도 심방하여 참고될 이야기를 채집하였다.

한편 보다 난감한 일은 한두 건이 아닌 남당의 난필 초고를 누가 어떻게 해독해 내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단 해초가 된 다음에는 이를 완역完譯해야 되는데, 과연 이를 내가 감당해낼까. 세상에는 이제 나로서 찾아가 물어볼 만한 곳도 없어졌다. 노선생들이 다 고인이 되어 없는 것이다. 한두 군데 신예 학자에게 수소문해 보았으나 '속학俗學을 하여 행초서行草書는 모른다'는 겸사謙辭인데, 특히나 남당의 글은 일별하면 그 어휘가 섬다贍多하고 독특하며 방언方言도 섞여 있어 이를 난서亂書한 본인도 시일이 지나서는 해득이 어려울 것만 같았다. 해독과 함께 번역에 들어가서는 몇 번이고 가로막혀 헤어나지 못하면서 이를 하겠다고 나선 자신의 무모함을 탄식했다. 생평에 수십만 자의 한문으로 온갖 형태의 글을 다 옮겨 보았지만 이렇게 힘드는 번역일은 처음인가 싶었다.

목천의 고우故友로서 그 시고 수감수음을 처음 번역한 한학자 운촌耘村 김철훈金徹壎에게 몇 편 남당 유고의 해초를 부탁하고 결과를 기다려, 서울대 법대를 나와 국제대학원대학교 법인삼국장으로 있는 목천의 차남 권수종權秀鍾이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권재종·권재창과 함께 운촌을 상면하고 회동하였다. 서울대에서 한문서예를 학습시키는 운촌이 나름으로 해초한 것을 내놓고 '이 자字일지도 모른다'는 식의 겸사와 함께 불감당이라면서 다른 한 곳을 일러 주고 그쪽에 부탁해 보라 하였다. 근년에 별세한 대가 용전龍田 김철희金喆熙의 문인門人들이 연 초서교실草書敎室이라 했다. 또 사사로이 무람없는 족대부族大父로 근우한시회槿友漢詩會를 이끌고 있는 동호東湖 권상목權相穆에게 수시로 부탁해 내가 해독 못하는 글자를 초벌 해초해 달라기도 하고 다른 데서 해초해온 것을 재확인하거나 거듭 해독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그렇게 하여 복사한 초고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그 지면이 연필 글씨 첨가자로부터 파랗고 빨간 가필로 누덕지가 되도록 해초를 거듭하고도 끝내 몇 글자는 해득을 포기하여 유사자類似字로 대치하거나 복자伏字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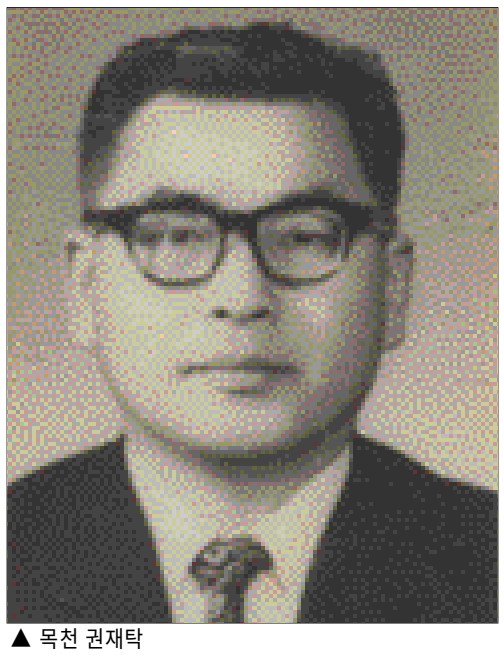
번역이 또한 독서량 부족으로 자해字解나 뒤져가며 상상력으로 꿰어맞추는 게 한계가 있는지라 어떤 것은 지질이 변색하고 흐려져 거의 판독이 불능인 간찰簡札 한 편을 가지고 무더위에 1주씩 씨름하기도 하였지만 무슨 자인지 해독을 하고도 끝내 명쾌한 풀이를 못한 것은 그저 원어휘만 돌출시켰으니 '포령 翎'이나 '북평가北平家' 등이 그것이다.

• 가계家系와 생애生涯

제1편에 그 만사 등이 실린 금원은 이름이 상표相杓, 자字는 이경理卿이고 그 호가 금원琴園이다. 고종 20년, 1883년에 경북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당시는 은풍현殷豊縣에 속했던 곳의 맛질에서 향년 43세로 수를 하지 못한 중암仲菴 권교연權敎淵의 1남으로 태어나 1926년 정월 5일에 같은 곳에서 부친보다 1년을 더한 44세로 졸했다. 성은 안동권씨安東權氏로 그 시조 고려 개국훈開國勳 태사太師 권행權幸의 33세손인데 권씨 성종姓宗에서 복야공파僕射公派 판서공계判書公系에 속하며 판서공 권인權靭의 5대손 야옹野翁 권의權 가 성균관생 진사進士로서 의흥현감義興縣監을 지냈는데 종전의 세거지 안동安東의 북후면 도계촌道溪村에서 은풍의 저곡渚谷 맛질로, 그 처가를 연고로 이거해 와 후손이 세거하여 입향조入鄕祖가 되었고, 권상표에게 13대조가 된다. 이 야옹의 어머니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파평윤씨坡平尹氏가 조선 중종中宗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종자매從 妹이고 야옹은 또 우찬성友贊成 충정공忠定公 충재 齋 권벌權 과, 식년문과式年文科와 조광조趙光祖의 현량과賢良科에 양과 급제한 제촌霽村 권장權檣의 맏형이다. 야옹의 손자 옥봉玉峰 권위權暐가 그 아들을 시켜 서인西人의 거벽巨擘이 되는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에게서 그 조부 야옹의 비문을 받았고, 야옹의 증손 사해당四亥堂 권상정權尙正은 청음 김상헌은 물론 현주玄洲 조찬한趙纘韓 같은 서인의 거물과 친교하면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아우 군수 이우李瑀의 사위가 되었다. 그 부인 덕수이씨德水李氏는 어릴 때 할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이 정원의 가지나무를 그리니 그림에서 가지가 열리므로 이를 손녀 부인에게 주었고 뒤에 노론老論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적전嫡傳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가 거기에 찬서贊敍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야옹의 자손은 본의든 아니든 서인측으로 분류되었다. 그보다 앞서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한번 저곡을 지나는 길에 통자通刺한 일이 있는데 이 때 맛질에서 환대치 않은 일로 그 문인門人들에게 노여움을 사 맛질의 권씨는 동인東人 천하인 안동 일대에서 행세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금원의 8대조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 섬계剡溪 권수원權壽元에 이르러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의 문인이자 사위로서 다시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문하에 들어가고, 5대조 용암龍岩 권성봉權聖鳳이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이 되며 조부 정암正菴 권경하權經夏가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면서 이 집안이 동남인東南人 색목色目으로 전환하는 데 자타간 이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퇴계의 후손 진성이씨眞城李氏 집안과는 제대로 혼계婚契를 트지 못하는 처지였다.

또 예천은 대처인 안동부安東府에 인접해 있지만 고을도 다르고 그 유림도 사회를 달리하고 있었다. 금원은 구한말의 변환기에 태어나 초학부터 가학家學으로 익히고, 이를테면 동네의 훈장글을 배우며 독학함에 그쳤지 누구에게 집지사사執贄師事를 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관에 워낙 탁월한 문재文才가 드러나 향당에만 머물지 않고 안동으로 나아가 그 유림 사교계에 출입하게 되었다. 이 무렵 안동 유림에서는 이른바 '병호시비屛虎是非'의 의논이 끝간 데 없이 번져 있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병호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을 제향하는 병산서원屛山書院과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을 제향하는 호계서원虎溪書院의 머릿자를 따 서애와 학봉 양현을 지칭함이고, 이 양현의 원묘院廟 위차 문제를 위요하여 야기된 의논이었다. 이 의논에는 양현의 후손 뿐만 아니라 각기의 문인門人들의 명분과 이해관도 뒤얽혀 한 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제삼자는 어느편도 들 수가 없으니 이 의논만 일어나면 모두 자리를 피하는 형편이었다. 그러한 의논의 자리에 예천의 권씨문중인으로서 유가에 명망이 있던 금원의 조부 정암 권경하와 정암의 재종형으로서 정암보다 20여년상의 유림 원로 소헌素軒 권인하權人夏가 재석하게 되어서는 중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스스로 안동 유림을 경원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산陶山의 진성이씨와 더욱 소원하게 되었다 한다. 심지어 맛질의 안동권씨 야옹 자손이 어떤 자리에서 진성이씨 퇴계 후손을 조우하면 서로 조면阻面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때에 맛질의 권씨로서는 안동의 유림사회가 발을 들이기에 살얼음판과 같은 처지인데 10대의 수재 금원이 나타나 각종 백일장白日場에서 장원壯元을 해가며 그 두각을 빛냈다. 그리고 언변과 논리가 또한 정연하였던 듯 어떤 모임이나 의논의 자리에서 늘 좌중을 압도하였다.


▲ 목천 권재탁

그러한 금원은 안동의 진성이씨로부터도 탄복을 이끌어내고, 본인이 초취 함양박씨咸陽朴氏를 상배한 후 진성이씨 이중교李中敎의 딸을 재취하였으며, 장남 남당을 진성이씨의 원집성촌 도산의 원촌遠村으로 장가들여 퇴계 문중과의 원만한 혼계를 부활시킨 인물로 회자되었다는 게 후인들의 이야기이다. 금원은 또 그 문호를 일으키려는 데 상당한 의지와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금원은 15세 때인 1897년 엄동에 그 부친을 여의는데 이때 부친보다 3년상인 모친 청주정씨淸州鄭氏는 46세였다. 후손에게 '넓은들할머니'로 불린 청주정씨는 생활력이 있고 가정家政에 밝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원은 1년상의 함양박씨 면진冕鎭의 딸을 초취하는데 22세 때인 1904년에 그 몸에서 맏아들 남당을 얻는다. 남당은 물론 그 선대의 500년 세거지 용문면 제곡리 저곡渚谷, 맛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남당이 17세가 되던 1920년에 38세의 금원은 재력을 또한 상당히 일으키면서 맛질로부터 10여리 상간인 용문면 상금곡리의 금당실金塘室로 이사하여 큰 집을 증축하고 복거卜居하는 것이 아들 남당의 '제친집우문祭親執友文'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사해간 집이 그 처가 함양박씨인이 살고 있던 대가로서, 그 터가 숙종·영조 시대 밀암密庵 이재李栽·구사당九思堂 김낙행金樂行 등과 나란히 영남 문단을 석권했던 남야南野 박손경朴孫慶(1713~1782, 은일 영릉참봉·동몽교관, 금곡서원金谷書院 배향)의 생가여서 이를 남보다 갑절을 친 값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장차 남야 같은 자손을 얻어 문호를 대창大昌케 하려는 염원에서였으리라.

상금곡리 금당실은 용문의 면소面所가 소재하는 곳이다. 지금 '청곡당淸谷堂'으로 불리는 이 집을 사 들어간 금원은 그 사랑채라 할 본채만 두고 뒤에 안채를 새로 짓고 본채와 안채 사이 동편에 곳간을 짓는 등 부속 건물을 더해 살았다. 이 청곡당집은 현재 도로 함양박씨인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예천군의 향토문화재로서 최근 5억원의 관비로 보수보전 처리를 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재 표지판에 적힌 내용을 보면, 소재지는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425번지, 본채의 건축 연도는 1873년경, 정확히 1873년 계유癸酉 8월 27일 묘시卯時 입주立柱 9월 초3일 신시申時 상량上樑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일자형一字形 안채와 사랑채가 다 남향이고 사랑채 오른쪽 옆으로 협문夾門을 두어 안채로 출입하며 협문 담장으로 내외당을 구분한다. 안채는 정면 5간, 측면 2간, 천정에 정교한 관자를 조립했으며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하였고 그 안채 좌측에 와가 구조의 별도 곳간이 있다. 사랑채는 높은 기단 위에 정면이 3간, 측면 1간에 홑처마 팔작지붕이며 중앙 1간이 당마루이고 양쪽이 온돌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본채, 즉 사랑채는 금원이 나기 10년 앞서 입주상량한 것이고 그 뒤의 안채는 금원이 이사하여 더해 지은 것이되 천장의 정교한 관자 등을 갖추었을만큼 재물과 정성을 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원은 그 선고에 이어 수한壽限이 부족한 장년 44세로, 금당실에 박남야의 유서가 깃든 고택을 사 신기新基를 연지 6년 만인 1926년 음력 정월 5일에 돌연 별세하였다. 병환이 위독하자 23세의 아들 남당이 단지수혈斷指輸血을 하며 성효誠孝를 다 하였으나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병명이 무엇이었던지는 전함이 없으나 오래 와병함이 없이 급환으로 윤서淪逝하는 변이 양대에 걸쳤던 것이다. 금원의 조세가 일대의 유림을 놀라고 애석케 하였음을 그 상사에 들어온 만사로 짐작할 수 있으나 유문遺文은 전하는 것이 없다.

남당南塘 권영호權寧鎬는 이

12면으로 계속